

제4회 항공우주 심포지움 및 항공산업 전시회 성황...

공군이 주최하고 한국테크노벤처(주)와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4회 항공우주 심포지움 및 항공산업전시회가 6개 국내업체 및 42개 외국업체 등 국내외 총 4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중 심포지움은 16, 17 양일간, 전시회는 옥내와 옥외로 나뉘어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 영국 BAe社의 옥내 전시코너



▼ 옥외 전시장 전경



제4회 항공우주 심포지움 및 항공산업 전시회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鄭根謨 과기처장관과 林憲杓 국방부차관등 국내외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한국테크노벤처(주)와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6개 업체 및 42개 외국업체등 총 48개사가 참여하였다.

16, 17 양일간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발한 주제논문 발표와 함께 토의로 진행된 심포지움에서 공군본부 李泰植 소장은 『신에 항공전력과 적정수준의 공군병력 확보를 통한 공군력의 증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언급하면서, 미래의 적의 위협에 대처할수 있는 무기체계 구축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李宗元 과기처 기계연구조정관은 「한국항공우주 기술개발전략」이란 주제논문발표에서, 이와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연구체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KFP등 국



▲대한항공 옥내 전시코너



▲현대정공 전시코너의 BK-117 다용도 헬기

가적 대형사업에서는 타산업과의 연계 모색과 고급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덧붙여 **李**연구조정관은 항공기 및 위성체의 최종조립과 부품품 생산업체간 계열기업군을 형성하여 협력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의 관련학과 증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金在洙** 삼성항공연구소장은 「국내 항공기제작을 위한 과제 및 중장기계획」이란 주제아래 항공산업의 전형적인 발전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경우 제1단계로 면허생산을 통해 항공산업기반을 조성하면서 중급항공기의 설계·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2단계 발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國科研·防振會 제5차 협력회의 개최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기반확충을 모색하고 상호 유대증진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5차 國科研·防振會 협력회의가 4월 2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방부, 국과연, 방진회 및 국내 방산업체 관련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장기기초연구사업 추진현황(국과연 **池太泓** 박사)」과 「국방연구개발과 민간연구개발의 협력방안(중앙대 **李在潤** 교수)」 및 「시험장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따른 설명(국과연 **黃海雄** 박사)」등을 주제로하여 진행되었으며, 발표후에는 참석인사들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전개되었다.

이 협력회의는 '88년 3월 26일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 그동안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이제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어쩔수가 없어

갑자기 병원의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큰일 났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먼도칼을 삼켜버렸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전기면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변경 안내

現代精工(株) 본사의 전화번호가 집단전화(D.I.D)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변 경 후	
741-2211(代)	D.I.D 전화번호	746-3×××
2221		746-4×××
2231	안 내	746-1114
3511		